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5. 7. 23.(목) 12:00
배포일시	2015. 7. 23.(목) 09:30
담당부서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담당자	과 장: 김형석(042-481-3720) 사 무 관: 이효석(042-481-3738)



인구주택총조사 D-100, 성공을 향한 카운트다운! 등록센서스, 스마트센서스 등 조사방식 변화에 따른 만반의 준비 갖춰!

-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조사 D-100일인 7월 24일을 기점으로 인터넷에 총조사 거점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성공적인 총조사 시행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올해 조사부터는 8년여 간의 노력 끝에 총 24종의 정부 보유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하여, 전 국민의 20%인 표본가구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보름간 진행되며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는 인터넷으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유경준 통계청장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읽고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통계조사”라며 “조사 응답자로 선정된 분들이 국민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자신과 이웃, 후손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1 : 2015 인구주택총조사>

① 2015 인구주택총조사, 왜 중요한가

-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 그리고 총조사 자료는 모든 통계의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통계로 각종 가구분야 표본조사의 모집단 및 표본틀로 활용되며,
-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2차 가공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민간 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에서 연구 자료나 마케팅 자료로도 활용되는 등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2015 인구주택총조사, 무엇이 달라지나

◆ 등록센서스 도입

- 이번 조사는 기존의 전수항목(주로 기본적인 내용을 조사) 부문은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대체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등록센서스 작성에 필요한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총 24종의 행정자료는 통계청이 13개 주요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집계 및 분석 작업을 거친 후 통계자료로 전환하여 인구·가구·주택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한다.

◆ 스마트 센서스 구현

- 현장조사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e-Census 통합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 하여 총조사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조사방법과 조사 지역 간 누락 및 중복을 최소화 하는 등 스마트 한 센서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 국민 응답 편의성 제고

- 현장 조사 및 인터넷조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가 편리하고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설계하고, 조사표 종류는 단순화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시간 민원처리를 위한 080 콜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표본조사 중 주택항목 3개(‘건축년도’, ‘연면적’, ‘단독 주택의 대지 면적’)는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 조사방식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

- 이번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현장조사에 동원되는 인력은 조사요원 4만 4천명, 공무원 6천명으로 총 5만명이며, 2010년 대비 6만 9천명의 인력이 감소하여 1,455억 원(추정)의 예산을 절감했다.

◆ 사회·경제 변화상 및 정책수요 반영

-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저출산·고령화, 가족 구조의 변화 등 현 사회상을 상세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선정하여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 특히 올해 종교, 자녀 출산 시기, 경력단절 여부 등의 신규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변화하는 사회상 및 정책수요를 반영하였다.

③ 통계청,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 등록센서스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감대 확산

- 통계청은 24종 행정자료의 연계·활용을 위해 13개 관계기관과 자료 제공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행정자료의 중요성, 활용 방안, 요청 항목, 안전 관리 방법 등 효율적인 자료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 또한 청·차장이 직접 17개 시도를 방문해 자치단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 계획과 총조사 실시에 대한 설명 및 협조를 당부하는 등 성공적인 총조사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노력했다.

◆ 체계적인 조사구 선정·관리와 현장조사의 안정적 추진

-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구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 조사구 설정 결과에 대한 현지 적합성 확인을 사전에 진행하여, 가구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고 현장 조사 진행 시 조사원의 업무량을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했다.
- 본 조사에 참여하는 표본 조사 가구는 원칙적으로 읍면동을 기준으로 약 20% 표본조사구*(조사구당 평균 가구는 약 30가구)를 추출하여 그 조사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시군구별 각종 통계표 뿐 아니라 읍면동 수준에서 주요항목의 통계생산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구수가 적은 일부 읍면동은 2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음

◆ 조사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관리

- 조사원 교육은 사이버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교관요원의 경우 정예화를 통해 정확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 조사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④ 2015 인구주택총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인터넷 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해당 기간에 인터넷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조사구의 조사원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조사 항목은 이름, 나이, 교육정도, 혼인상태, 통근통학, 경제활동상태, 임차료, 자녀출산시기 등 총 5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인구·가구·주택, 출산력, 통근통학, 고령자, 여성, 1인가구 등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참고 2 : 2015 조사항목>

구 분		전수조사 항목(12)	표본조사 항목(52)	
UN 권고 항목 (38)	인구 (24)	①성명 ②성별 ③나이 ④가구주와의 관계 ⑤국적 ⑥입국 연월	①성명 ②성별 ③나이 ④가구주와 관계 ⑤국적 ⑥입국 연월 ⑦종교* ⑧교육 정도 ⑨전공 계열* ⑩출생지 ⑪1년 전 거주지 ⑫5년 전 거주지	⑬활동 제약 ⑭통근·통학 여부 ⑮통근·통학 장소 ⑯경제활동 상태 ⑰종사상 지위 ⑱산업 ⑲직업 ⑳근로 장소 ㉑혼인 상태 ㉒혼인 연월 ㉓출산 자녀 수 ㉔자녀 출산 시기*
	가구 (8)	①가구 구분	①가구 구분 ②사용 방 수 ③주거시설 형태 ④난방시설	⑤주거전용·영업겸용 여부 ⑥점유 형태 ⑦임차료 ⑧주인(대표) 가구 여부
	주택 (6)	①거처의 종류 ②주거용 연면적 ③건축연도 ④대지면적	①거처의 종류 ②총 방 수 ③주거시설 수	④주거용 연면적** ⑤건축연도** ⑥대지면적**
고유 항목 (15)	인구 (11)	①본관***	①아동 보호 ②이용 교통수단 ③일상생활및 사회 활동 제약* ④통근·통학 소요시간 ⑤현 직업 근무연수	⑥추가 계획 자녀 수 ⑦결혼 전 취업 여부* ⑧경력 단절* ⑨사회 활동 ⑩고령자 생활비 원천
	가구 (4)		①거주 기간 ②건물 및 거주 층	③주차장소 ④타지 주택 소유 여부

주 1)*: 신규항목('10년 대비)

2)**: 행정자료로 대체되는 표본항목

3)***: 전수에만 있는 항목